

■ 語文論文

韓國語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正體性 -기능동사 擁護論-

睦 正 洙

(서울市立大 教授)

要約 및 抄錄

이 논문은 國語文法에서 많은 논의거리를 제공했던 ‘이다’의 文法的 地位를 ‘기능동사’로 볼 수 있는 根據를 제시한다. ‘이다’와 관련된 ‘省略’의 문제, ‘口蓋音化’의 문제, ‘格割當’의 문제 등에 대한 再檢討를 통해 ‘이다’는 적어도 主格助詞로 規定되기는 어렵고 統辭的 接辭說도 기능동사설로 統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이다’ 구성의 統辭構造와 意味解釋의 문제를 一貫되게 풀기 위해서는 ‘이다’를 動詞의 차원에서 ‘기능동사’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격할당의 문제 즉, 선행 명사구에 ‘이/가’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는 格助詞 또는 格的 문제가 아니라 限定助詞 制約의 문제로 轉換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주장한다. 관련해서, 否定形 ‘아니다’는 共時的으로 ‘안+이다’와 ‘아니+(이)다’로 分析 가능성을 摸索하여, ‘이다’가 動詞 次元의 형식적 語幹 자리를 차지한다는 論旨를 강화한다.

※핵심어 : 格割當, 기능동사, 기능형용사, 主格助詞, 統辭的 接辭, 限定助詞

I. 들어가기

본고는 ‘이다’의 正體性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능동사’로서의 ‘이다’를 辯論하고자 한다.¹⁾ 본고는 ‘이다’ 구문이라는 局部的인 현상을 설명하면서도 그

1) 여기서 ‘기능동사’는 전통적으로 써오던 ‘계사’나 ‘지정사’와 사실상 그리 다르지 않다. 다만, ‘계사’나 ‘지정사’로 규정하는 것이 흔히들 본용언으로 보는 것-‘이다’의 용언설이라고 흔히 분류됨-으로 오해를 받는 형편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틀이 한국어 문법 전반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巨視的인 차원에서 논의, 모색하고 있는 代表的인 세 가지 논의-임흥빈(2005), 시정곤(2005), 우순조(2005)-를 중심으로 그들이 서로 간에 論駁 또는 立證 資料로 쓰고 있는 논점들의 本質을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이다’의 本質과 그 文法的 地位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학계의 頂點에 위치한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 주장-임흥빈의 형용사설, 시정곤의 접사설, 우순조의 주격조사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충돌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糾明할 수 있다면, ‘이다’의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結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다’에 대해 ‘기능동사’라는 개념으로 接近한 적이 있는 목정수(1998, 2003)은 이후의 ‘이다’ 관련 논의에서 간혹 ‘형식 용언설’ 주장의 한 예로 분류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 거의 消化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본고의 視角과 다른 입장에서 거론한 바 있는 여러 음운론적, 형태·통사론적, 의미·화용론적 문제의 本質에 대해서 **다르게 제기한 문제**가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목정수(1998)의 핵심 내용을 喚起시키면서 논의를 展開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노리는 것은 만약 본고가 다시금 명시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위의 세 논의들이 다른 명확한 대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면, 본 논의와 대립하고 있는 설들은 그 妥當性이 半減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런 점에서 본고가 주장하는 ‘기능동사’로서의 ‘이다’의 正體性 문제가 다시 한번 이해의 빛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順序로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 II장에서는 임흥빈(2005)를 중심으로 ‘이다’를 형용사(=본용언으로서)로 보는 논의에 共感할 수 있는 부분과 그에 따른 문제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다’가 敘述語의 형식·내용적 중심을 이룬다는, 즉 동사 어간의 核으로서 ‘이다’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고 이것이 ‘기능동사’로 어떻게 收斂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제III장에서는 ‘이다’와 관련된 음운론적 현상으로 口蓋音化의 문제를 논의한다. ‘구개음화’라는 음운론적 현상을 하나의 論據로 삼아 ‘이다’의 正體性을 논하기 시작한 시정곤(1993, 2005)을 다시 한번 곱씹어

‘기능동사’란 용어를 쓰고자 한다.

봄으로써, ‘이다’의 구개음화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것이다. 또한 우순조(2005)를 중심으로 그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음운론적 차원의 구개음화의 문제가 갖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그의 논의가 受容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즉, 그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주격조사 ‘이’가 야기하는 구개음화 현상과 ‘이다’가 야기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이다’ 구성의 基本構造 설정 문제와 이와 더불어 파생되는 統辭的 制約과 意味解釋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를 통해서 ‘이다’ 구성에서 제기되는 格 割當의 문제가 실상은 격case의 문제가 아닌 ‘한정조사(determiner/delimiter/article)’ 제약의 문제로 바뀌어 논의되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다’ 구성의 의미 해석의 제약성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또한 우순조(2005)가 어순뒤섞기를 증거로 도출하는 ‘주격조사설’의 문제 또한 의미적 해석의 차원에서 再檢討할 것이다.

II. ‘이다’, 本用言인가 機能用言인가?

본고는 전체적으로는 임홍빈(2005)의 형용사설에 대해서 그 논의의 방향에 대해 肯定的인 시선을 유지한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의 입장이 ‘이다’의 動詞性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다’를 ‘정체밝힘’의 본동사로 보고 있는 점은 명확히 다르지만, 목정수(1998, 2003)에서의 ‘기능동사’와 동사라는 共通分母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목정수(2003)에 대해서 “목정수(2003)에서는 ‘이다’를 ‘기능 동사’로 언급하고 있다. ‘아니다’를 형용사로 보는 데 반대하고 있으므로(p.122.), ‘이다’를 형용사로 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기능 동사’라는 것이 품사 체계의 바깥에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소진성’의 원리를 어기게 된다”고(임홍빈, 2005:17) 한 부분에 대해 解明과 동시에 서로의 논의가 어떻게 統合될 수 있는가를 보이도록 하겠다. 즉, ‘이다’와 ‘아니다’의 품사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다’의 正體性은 곧바로 ‘아니다’로 연결된다는 것을 문법적 환경을 토대로 입증할 것이다.

1. 動詞과 形容詞 그리고 기능동사와 기능형용사

목정수(2003)은 한국어 어휘의 品詞體系를 논할 때, ‘형용사’는 동사의 하위부류로 歸屬시켜 동사와 형용사를 같은 선상에 대립적인 것으로 놓지 않는 路線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는 유일한/핵심적인 기준 ‘-는다/ㄴ다’의 效用性을 받아들인다면, 목정수(1998)에서 ‘기능동사’라고 했던 ‘이다’의 품사는 ‘기능형용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부(를)하다’의 ‘하다’를 기능동사로, ‘유명(을)하다’의 ‘하다’를 기능형용사로 나누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목정수(2003)에서 형용사를 동사 차원에서 묶고 그의 하위분류 차원에서 형용사를 ‘記述동사(=성상형용사)’, ‘主觀동사(=심리형용사)’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다’의 정체를 밝히는 논의와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다’의 동사성(=용언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다’를 기능동사 support verb라고 볼 때, 含意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점이다.

첫째, 품사는 동사라는 것이다. 그 동사라는 선을 유지하면서, 하위적으로 통사·의미적인 차원에서 기능에 입각하여 분류하자면, ‘이다’는 본동사가 아닌 ‘기능동사(=輕動詞)’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²⁾

둘째, 의미적인 차원에서 非自立的인 양상을 보이고, 어휘적 차원의 實質的 의미가 딱히 집히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다’는 기능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구조의 意味的 中心은 ‘이다’에 선행하는 요소—그것이 명사이든(학생이다), ‘형용사’이든(관념적이다),³⁾ 부사이든(정말이다), 조사구이든(학교에서이다), 활용형이든(통해서이다), 이를 하나의 틀로 糾合해야 하는 것은 다음 차원의 문제임—가 擔當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서술 위치에 오는 요소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성분들의 논항 관

2) 김의수(2002)에서는 ‘형식동사dummy verb’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X-적’ 단위에 대해 전통적으로 명사와 관형사로 분리하여 기술해 온 것이 사실이나, 본고에서는 그 단위의 형태·통사적 행태를 기준으로 ‘형용사’로 통합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추상적 개념’과 ‘개념이 추상적이다’에서 ‘추상적’이 이질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즉, 前者는 ‘추상적’의 수식적 용법이고, 後者는 ‘추상적’의 서술적 용법인 것이다. 앞으로 ‘형용사’라고 표기한 것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계가 좌우되는 것이기에 ‘이다’ 구성의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바로 의미의 핵심인 ‘이다’의 선행 요소에 달려 있게 된다. 이는 아주 典型的인 ‘기능동사 구문’이 보여주는 현상의 하나이다. 전형적인 기능동사 ‘하다’ 구성에서 述語名詞에 따라 달라지는 論項構造와 ‘이다’ 구성에서 나타나는 논항구조의 변화 양상을 比較해 보자.

- (1) 가. 철수는 학생이다.
 나. 철수는 영희와 친구이다.
 다. 철수는 떠날 참이다.
- (2) 가. 철수는 노동한다.
 나. 철수는 영희와 연애한다.
 다. 철수는 죽을 듯하다.

물론, 늘 언급되듯이, (2)에 비해 (1)에서는 소위 ‘어근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 (3) 가. *철수는 학생만 이다.
 나. *철수는 영희와 친구가 이다.
 다. *철수는 떠날 참도 이다.
- (4) 가. 철수는 노동만 한다.
 나. 철수는 영희와 연애를 한다.
 다. 철수는 죽을 듯도 하다.

셋째,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다’의 論項構造는 어떠해야 할까? 본고도 기본적으로는 [N0 N1 이다] 구조로 보고 있다. N0는 주어 자리, N1은 보어 자리이다. N1의 보어 자리에 오는 어휘의 성격에 따라 다른 논항구조가 결정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그 구조를 일반화하여 다음 (5)와 같이 표상한다. (6가)는 ‘생각(을) 하다’에 대한 基本構造이고, (7)은 ‘유명(은) 하다’에 대한 基本構造를 나타낸 것이다.

(5) $N0-(\phi_1)-(가/는/도) N1-(\phi_1)-(\phi_2)$ 이다

(6) 가. $N0-(\phi_1)-(가/는/도) N1-(\phi_1)-(\phi_2/를/는/도)$ 하다 <->
나. $N0-(\phi_1)-(가/는/도) N1-(\phi_1)-(\phi_2/가/는/도)$ 되다

(7) $N0-(\phi_1)-(가/는/도) N1-(\phi_1)-(\phi_2/를/는/도)$ 하다

이는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건설(을)하다’, ‘건설(이)되다’의 ‘하다’, ‘되다’를 기능동사로, ‘유명(을)하다’의 ‘하다’를 기능형용사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자의 시각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6)과 (7)의 ‘하다’는 공히 기능동사이고, 그것이 통사적으로 결합하는 ‘述語名詞’의 성격에 따라 그 동사적 특성과 형용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把握하는 것이다.⁴⁾

(8) 철수는 영화와 친구가 되었다.

(9) 철수는 소설로 유명은 하지만,

표면적으로 동사 자체의 形態的 活用 면을 보면, ‘유명하다’의 동사 ‘하다’는 형용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다’가 동사적으로 쓰일 때 ‘키가 잘 크다’가 되고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 ‘키가 참 크다’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크다’는 범주가 동사인데, 그 語尾와의 결합에 의해 동사(=행위동사)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기술동사)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동사 ‘하다’는 先行 要素에 따라 ‘기능동사(=행위동사적)’나 ‘기능형용사(=기술동사적)’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철수는 학생이다]와 [철수는 나하고 친구이다]의 기본 統辭構造는 같다고 본다. 다만, 그 차이점은 핵심구조에서 제2의 논항자리에 오는 ‘학생’과 ‘친구’의 개념구조, 논항구조의 차이—‘학생’에 비해 ‘친구’는 관계명사이므로 제3의 논항 “~와”를 요구한다—에 따른 것만 다른 것이다. 전

4) ‘X하다’, ‘X-를 하다’에서 ‘하다’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느냐 동일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수 있는데, 본고는 같은 것, 즉 機能動詞로 보고 있다. 즉, ‘X-하다’의 ‘하다’를 파생접사가 아닌 ‘기능동사’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X-하다’는 ‘X’와 ‘하다’의 統辭的 構成으로 파악한다(목정수, 2003/2006 참조).

자는 일반명사(=非述語 名詞)가 補語 자리에 놓인 것이고, 후자는 述語名詞가 補語 자리에 놓인 것이다.

(10) 가. 철수는 [학생]-이다.

나. 철수는 [[나하고][친구]]-이다.

다. 철수는 [[내 의견에] [반대]]-이다.

이는 ‘친구이다’를 접사에 의해 派生된 하나의 記述動詞(=성상형용사)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이를 ‘친구’와 ‘이다’의 통사적 결합으로 파악하고, ‘述語名詞’와 기능동사 ‘이다’의 통사적 결합으로 봄으로써 이들을 ‘連語’ 구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바로 이어진다. 임홍빈(2005)의 논의 뒷부분에서 제안되고 있는 ‘연어’ 구성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다’를 본용언 즉, 형용사로 본다면, ‘~와’ 논항은 이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은 ‘이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自명한 것 같다. 임홍빈(2005)는 바로 이 점을 ‘이다’의 연어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連語性이란 ‘이다’가 기능동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전형적인 연어 구성 ‘결정(을) 내리다’, ‘합석(을) 하다’의 구조를 파악하는 다양한 방식과 비교해 보면, 그 태도의 一貫性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

그렇다면 (10가)의 ‘이다’와 (10나)의 ‘이다’는 같은가 다른가? 이 문제는 ‘과자(를) 먹다’와 ‘마음(을) 먹다’의 ‘먹다’를 같은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 다른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와 同一線上에 놓인다. ‘공부(를) 하다’와 ‘빨래(를) 하다’, ‘고추(를) 하다’, ‘나무(를) 하다’의 ‘하다’를 파악하는 것과도 같다.

‘먹다’와 같이 그 자체로 어휘적 실체로서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本動詞/重動詞’로서의 ‘먹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휘적 실체가 불투명한 ‘기능동사’로서의 ‘먹다’를 논의할 수 있겠고, ‘하다’처럼 자체로는 그 어휘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능동사’로서의 ‘하다’를 우선적으로 보고 부차적으로 ‘重動詞’로서의 ‘하다’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다’ 구성은 그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듯하다. ‘이다’의 의미적 불투명성을 근거로 하면, 기능동사로서의 ‘이다’를 으뜸으로 할 수 있겠고, [비술어명사+이다] 구성의

그러나 중동사로서의 ‘이다’와 기능동사로서의 ‘이다’의 境界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이다’의 自立性 缺如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다’를 기능동사로 파악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시정곤(2005)를 바탕으로 그가 제시하는 한국어 문법의 틀을 점검하고, ‘統辭의 接辭’의 개념이 결국 형태·통사적 질서에서 통합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형태와 의미의 종합적 관계와 한국어 문법의 巨視的 次元에서 다시 보면, ‘이다’를 ‘통사적 접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는 ‘기능동사’로 收斂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는 모든 ‘통사적 접사’가 ‘기능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다’를 ‘통사적 접사’로 보는 것 자체가 그리 큰 의미는 없다는 것, 즉 ‘이다’의 特性과 本質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접사’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그 무엇’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정곤(2005:63)을 보면, ‘학생이다’를 誘導하기 위해 [-FF] 자질을 가진 통사적 접사 ‘이다’에 [+FF] 자질을 가진 선행 핵 ‘학생’이 S-구조에서 核移動을 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제시한 것이 다음과 같다. 핵이동을 통해 보더라도 그가 제시하고 있는 구조 내에서 ‘이다’는 동사 위치를 점하고 있다.

(12) 가. 철수는 [[[학생]_N]_{NP} 이_v]_{VP}다.

나. 철수는 [[[t]_N]_{NP} [학생이]_V]_{VP}다.

‘X-하다’를 ‘X-를 하다’ 구성에서 어휘 핵 ‘X’의 核移動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다’가 동사적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고 있듯이, ‘이다’도 동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 의미의 불투명이 문제이기 때문에,⁵⁾ 단순히 ‘(본)동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능동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⁶⁾

우순조(2005)에서는 ‘이다’의 ‘이-’를 助詞로 보고 있기 때문에,⁷⁾ ‘이다’는 자동적으로 ‘助詞’와 ‘語尾’의 결합이 되는 것이며 그는 조사와 어미의 결합을 허용하는 입장에 놓인다. 이는 (다른 많은 것을 차지하고) 어미와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다’를 용언으로 보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과 엄청난 인식의 괴리가 있다. 우순조(2005)는 ‘[학생-이]-다’에서 주격조사 ‘이’와 종결어미 ‘다’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조사-어미 연쇄의 특이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
- 5) 시정곤(1995)의 巨視 體系에서 본동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조동사’ 또는 ‘기능동사’ 대신에 ‘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바로 그 접사는 ‘동사성’과 관련된다는 것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정곤(1995)가 포함하고 있는 통사적 접사, 즉 조사, 어미 등과 ‘이다’, ‘하다’ 등은 이름은 같다 하더라도, 그 성격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시정곤(1995)의 접사 유형 분류에 따르면, ‘이다’는 ‘통사적 어휘 접사’이고 조사와 어미는 ‘통사적 기능 접사’인 것이다. 여기서 ‘통사적 어휘 접사’라는 말은 형태·통사적인 차원에서 결국 ‘이다’의 動詞性(=용언성verbality)을 의미하는 것이다.
- 6) 시정곤(2005)의 논의도 잘 들여다보면, ‘이다’를 동사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의 문법 분류 체계가 크게 語彙와 接辭로 나누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다’를 비어휘, 즉 접사로 보는 것이고, 그의 행태를 통해 語彙的 接辭와는 구분되는 統辭的 接辭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의의 배경을 짚을 수만 있다면, ‘통사적 접사’, ‘기능동사’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그것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 7) 시정곤(1998)도 조사를 통사적 접사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시정곤(2005)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즉, 그도 ‘이다’의 ‘이’를 통사적 접사로 보지만, 主格助詞로서의 통사적 접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다.

(13) 가. 부모님께서는 자-나 깨-나 자식 걱정이다.

나. 이라크 파병은 실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지지받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 (13나)의 조사-어미의 결합에서 어미 ‘(으)나’의 형태는 항상 ‘이’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看過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여기서의 ‘나’는 ‘으나’와 변이형 관계인 어미가 아니라, ‘이나’와 변이형 관계인 한정조사(=보조사)인 것이다.⁸⁾

(14) 가. 명분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나 ∞ 이나)

나. 교수랑이나 학생이랑이나 상관없다 (나 ∞ 이나)

따라서 조사-어미의 결합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국어 문법의 一般性을 해치는, 즉 得보다는 失이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Ⅲ. ‘이다’와 관련된 音韻 현상

1. 왜 口蓋音化 현상이 문제인가?

이 문제는 시정곤(2005)와 우순조(2005)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논거로 擧論되는 것이다. 어떤 立場을 택하든지 간에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용언설이 이에 대해서는 제일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임홍빈(2005)의 논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제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몇 마디 방어의 辯을 늘어놓는 것이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본고는 ‘이다’ 구성이 반드시 구 개음화의 환경이 되지 않아도 無妨하다고 본다.⁹⁾ 이는 조사 ‘-이’가 필수적

8) 국어문법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보조사를 ‘이’계 보조사/특수조사라고 한다(최동주, 1999).

9) 양정석(2001:392)도 이런 지적을 한 바 있다.

으로 구개음화 현상을 惹起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발이 넓다. (→ [바치] 또는 [바시] **그러나** [*바디])

(16) 그것은 내 발이다. ([바치다] 또는 [바시다] **그리고** [바(#)디다])

구개음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Y’와 ‘이다’ 사이의 경계를 形態素 境界로 보고, ‘이다’를 형태소 경계를 이루는 ‘접사’로 보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Y’와 ‘이다’는 統辭的 構成이라는 점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럼으로써, 구개음화 현상이 隨意的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 구개음화는 ‘이다’가 ‘기능동사’로서의 의존적 통사적 단위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면 양쪽을 모두 包括하는 설명이 될 듯하다.

또한 맞춤법상에서 강요되는 선행 성분에 붙여 쓰기의 문제도 ‘Y’와 ‘이다’의 ‘단위성’ 즉, 형태론적 구성을 保證하는 언어학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보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규정 때문에 ‘이다’를 선행 요소에 붙여 쓰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띄어 쓰는 경우도 許多하다(김상태, 2006 참조). 왜냐하면, 이들 단위에 통사적인 경계가 놓임을 보여주는 事例가 많기 때문이다. ‘이게 네가 붙여먹고 싶은 발#이야?’로 발화해도 되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다’와 결합하는 선행 요소가 긴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는 얼마든지 ‘이다’를 띄어 쓰고자 하는 慾望이 일어나는 것이고, 특히 ‘이다’가 多音節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

(17) 가. 서울시립대에 근무하는 교수 목정수 이오.

나. 안녕하세요. 지난 번 전화 드렸던 학생 목정순 입니다.

[Y#이다]의 경계가 형태소 경계인가 아니면 단어 경계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사적 접사설’에서 탄탄한 根據로 삼는 것이 구개음화 현상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시정곤, 2005:69~70). 국어의 구개음화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성분과 ‘이다’의 결합이 형태적 구성인가 통사적 구성인가를 따지는 작업에서 이러한 음운현상보다도

둘의 결합의 開放性과 그 의미적 透明性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음운현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소 流動的이기 때문이고, ‘이다’의 정체를 밝히는 데는 관련된 통사·의미적 현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8) 팔입니다 → [파칩니다] / [파십니다] / [파듭니다] ← [팔#입니다]

(19) 맛있습니다 → [마시씁니다] / [마디씁니다] ← [만#이씁니다]

‘이다’와 선행성분의 결합은 形態論的 構成人가 統辭論的 構成人가의 문제가 먼저 음운론적 문제에 앞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격조사’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Y’와 ‘이다’의 결합은 통사적 구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임홍빈(2005), 시정곤(2005), 우순조(2005)의 논의에서 모두 採擇되고 있는 듯하다. 임홍빈(2005)는 형용사와 보어 명사구의 결합으로, 시정곤(2005)는 그 통사적 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단순히 접사라고 하지 않고 ‘통사적 접사’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우순조(2005)도 활용어미뿐만 아니라 격조사를 통사적 단위로 보기 때문에 ‘명사구’와 ‘주격조사’의 통사적 구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구개음화와 관련된 ‘이다’의 依存性이란 국어의 韻律 단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통사적 단위의 正體性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에서 보듯이 ‘한 잔’은 분류사구로 독립적인 단위이지만 운율적으로는 앞말 ‘커피’와 하나의 운율구를 이룬다. 副詞 ‘좀’도 마찬가지로 후행 동사보다는 선행요소에 의존적으로 들러붙는다. 비록 이 운율적 현상을 통해서 분류사구나 副詞가 조사로의 文法化 과정을 겪었다고 보더라도, 이들의 ‘어휘적’ 성격과 자격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가 구개음화 현상에 關與的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통사적 단위로서의 ‘어휘성’이¹⁰⁾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20) 가. 커피 [한 잔] 마시자. → [커피 한 잔] 마시자.

10) 물론 여기서의 語彙性은 ‘이다’의 의미의 비어있음(semantically empty)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입장에서 어휘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 커피 [좀] 사 주세요. → [커피 좀] 사 주세요.

2. ‘이다’의 省略 현상과 그 本質

‘이다’를 서술격조사, 주격조사로 보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根據 중의 하나가 ‘이’의 생략 가능성이다. 격조사 특히 구조격조사-이/가, 을/를, 의-가 상황이나 문맥, 문체에 따라 생략되는 것처럼, ‘이다’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조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論理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소위 ‘(구조)격조사 ‘이/가’ 생략’에서 느껴지는 意味差는 ‘이다’의 생략에서 느껴지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즉 다음 (21가)~(21나) 사이의 의미차와 (22가)~(22나) 사이의 의미차가 平行하지 않다는 直觀이 문제이고, 어떤 식의 설명이 주어지더라도 마음에 꺼림칙한 그 무엇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21) 가. 돈 있어요?

나. 돈이 있어요?

(22) 가. 저 친구가 정말 교수입니까?

나. 저 친구가 정말 교수입니까?

(21)과 (22)에서 조사 ‘이/가’의 있고 없음은 분명 論理的 命題 次元에서는 의미차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논의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강조’라든가 ‘초점’의 여부라든가 담화·화용론적 차원에서 이것의 있고 없음은 분명 논리적 의미 이상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同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를 조사 ‘이/가’와 ‘을/를’의 존재 여부에 따라 문장 전체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보통 ‘修辭 疑問文’으로 불리는 것들은 이러한 조사 없이는 불가능한 반면에, 조사 없는 문장은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해석된다.

(23) 가. 너는 그 사실 알고 있냐?

나.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냐?

(24) 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나.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또한 ‘이다’ 뒤에서만 結合되는 특수한 형태의 語尾는 ‘이’의 생략과 관계없이 선행하는 ‘Y’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가 어휘적 단위의 境界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¹¹⁾ 이는 임홍빈(2005)의 논의에서 잘 지적됐듯이, ‘아니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아니다’에는 어쨌든 ‘이다’가 들어있는 것만은 확실하다.¹²⁾ 관련된 논의를 좀더 살펴보자.

-
- 11) ‘이다’의 이러한 어휘성 때문에 그 통사적 지위가 動詞 範疇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동사 단위만이 語尾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 (1) 철수는 교수(*이)어서, 돈을 못 번다.
- (2) 철수는 학생(*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순조(2005)의 각주 8)에서 “한국어에서 어미들은 형용사의 뒤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한국어 술어의 끝바꿈 현상이 인구어의 活用 양상과 같지 않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라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의 소위 形容詞라는 품사 단위는 인구어의 형용사하고는 성격이 출판선상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인구어의 品詞 基準에 부합시키면 이는 동사 또는 동사 하위부류에 속하는 범주가 되는 것이다. 한국어 동사의 끝바꿈이 인구어의 활용 양상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해도 ‘어미’가 형용사 뒤에서도 관찰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만큼은 인정하기 힘들다(목정수, 2003/2006 참조). 아울러 우순조(2005)의 논의에서 한국어 어미의 膠着性과 통사적 단위에 대한 논의와 활용 개념에 대한 批判은 수궁이 가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韓國語 文法의 거시적 차원에서 명사와 동사 어휘 차원의 구분이 조사, 어미의 결합의 제약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일반성은 무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엄정호(2000), 김의수(2002) 참조).

- 12) ‘아니다’와 ‘이다’의 相關性을 고려하면서, ‘아니다’를 공시적으로 분석한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안+이다 > 아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이다 > 아니(이)다]이다. [안+이다]의 분석 가능성이 立證될 수 있다면, 결정적으로 ‘이다’는 用言, 기능동사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상 별고를 기약할 수밖에 없겠다.

연결어미 ‘은데’는 主觀動詞(=심리형용사)나 記述動詞(=성상형용사)와 결합하고, ‘는데’는 行爲動詞(=동사)와 결합한다. 즉, 동사라는 어휘에 영향을 받는다.

- (25) 가. 싫다/싫은데, 착하다/착한데
나. 먹다/먹는데, 가다/가는데

그러나 先語末語尾 ‘었’과 ‘겠’이 개입되면 주관동사/기술동사/행위동사의 어휘적 성격에 의해 구별되던 ‘은데’와 ‘는데’는 똑같이 ‘는데’가 된다.

- (26) 가. 싫었는데, 착했는데
나. 먹었는데, 갔는데
(27) 가. 싫겠는데, 착하겠는데
나. 먹겠는데, 가겠는데

반면에, ‘시’와 같은 先語末語尾가 개입되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시’는 어휘 경계가 되지 못한다.

- (28) 가. 싫으신데, 착하신데
나. 드시는데, 가시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先語末語尾 ‘었’에는 그 형태가 縮約되어 있더라도, 어휘적 경계를 이루는 ‘있’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듯이, ‘이-’에 의해 다음의 어미의 형태가 정해진다는 것은 분명 이것이 어휘의 경계로 作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9) 가. 교수(이)로다, 교수(이)라고, 교수(이)랍시고, 교수(이)라야 ……
나. 학생이로다, 학생이라고, 학생이랍시고, 학생이라야 ……
(30) 가. 교수(가) 아니로다, 아니라고, 아니랍시고, 아니라야 ……
나. 학생(이) 아니로다, 아니라고, 아니랍시고, 아니라야 ……

‘이다’의 省略 可能性의 문제를 두고 시정곤(2005)의 논의에서는 “이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선행어에 가시적인 요소는 접사이다”라고 언급한 후, “국어에서 용언어간이 선행어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수의적이든 국부적이든)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반문을 통하여 ‘이다’가 (통사적) 접사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생략된 요소의 復元에서 ‘이다’의 경우와 다른 경우는 차이가 있다. ‘이다’의 경우에는 언제나 ‘이다’의 복원이 예측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31) 철수가 교수다. = 철수가 교수이다. ≠ 철수가 교수되다.

(32) 먹어야겠다. = 먹어야 하겠다 = 먹어야 되겠다 = 먹어야 쓰겠다

.....

따라서 ‘용언’의 어간이 생략될 수 없다는 주장에 立脚하여, ‘이다’의 용언 설을 부정하는 것은 그 토대가 탄탄하지 못한 것이다. ‘이다’의 ‘이-’ 생략은 분명 音韻論的 環境에 의해 수의적으로/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명 ‘음운론적’ 현상이며, 이 생략이 가능한 것은 그 환경에 의해 ‘이다’가 자동적으로 復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脫落이 의미적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다’ 생략은 용언이기 때문에 못 일어날 것은 아니고, 단지 음운론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수의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¹³⁾

(33)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공원에서다.

=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공원에서이다.

≠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공원에서*하다/답다/스럽다.

13) 비유적으로 ‘큰일 났다’가 ‘클 났다’로 縮約되는 경우에서도 어휘의 중심이 되는 ‘일’의 한 구성요소인 /이/가 축약되는 과정에서 ‘큰’의 /으/에 밀려 脫落되는 것은 단순한 음운론적인 현상이므로, ‘클’에서 ‘큰 일’이라는 의미가 사라지지도 않고, 충분히 ‘클’에서 ‘큰일’을 복원해 낼 수 있는 것이다.

IV. ‘X-는 Y-이다’ 구성의 統辭的 制約과 의미해석

1. 왜 ‘-이-’의 先行 名詞句에는 격표지가 나타날 수 없는가?

‘이다’의 正體性을 두고 이루어진 논의들을 보면, 共通的으로 지적되는 事項이 있다. ‘이다’가 용언이라면 그 용언이 요구하는 논항으로서 출현하는 명사(구)에 왜 격이 割當될 수 없느냐 하는 점이다. 용언을 문장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격의 할당이라는 생성문법 계열(=GB식)의 논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다시 ‘이다’가 취하는 논항에 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어떤 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다’와 ‘아니다’의 相關關係에 의해 주격 또는 보격의 ‘이/가’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이것을 보면 ‘이다’와 ‘아니다’가 분명 某種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보격의 ‘이/가’가 ‘이다’ 구성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그 전형적인 예를 보자.

(34) X-는 Y-이다

(35) X-는 Y-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特定 理論에 傾倒되기에 앞서 현상적으로 (34)에서 ‘Y’가 분명 하나의 성분으로 사용된다는 사실, 즉 ‘Y’라는 단위와 ‘이다’가 統辭的 結合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Y’는 하나의 성분이고 한국어에서 하나의 성분이라면 조건과 환경만 마련된다면, 보조사와 교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보격조사 또는 주격조사 ‘이/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조사들—보조사라고 하는 것 모두 그런 것이 아님에 주의할 것—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制約이 있다. 본고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현상이다. 왜 ‘Y’ 성분하고는 ‘이/가’를 위시하여 ‘(을/를), 은/는, 도’가 붙을 수 없는가?¹⁴⁾ 그

14) 남길임(2004:25)에서는 조사 ‘이’와 ‘이다’의 어휘 의미적 유사성과 의미적 잉여성에 의해, 즉 양쪽에 다 ‘지정’이라는 의미가 있어 조사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쪽에 있다는 ‘지정’의 의미를 糾明

밖에 ‘이다’ 구문의 특수한 경우를 총체적으로 보면, ‘Y’ 성분에는 격조사 ‘에서, 로서’ 등이 결합된 경우와 보조사 ‘만, 조차’ 등이 붙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유독 ‘이/가’, ‘은/는’, ‘(을/를)’, ‘도’, ‘이나’, ‘이라도’ 같은 것들만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分裂文 cleft sentence에서 그러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36) 철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어 한다.

(37) 가. 철수가 도서관에서 읽고 싶어 하는 것은 책(*을)이다.

나. 철수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이)다.

(38) 철수는 책만 읽었다.

(39) 가. 책만 읽은 것은 철수(*는)이었다.

나. 철수가 읽은 것은 책만이었다.

이에 비해 ‘아니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니다’는 否定副詞 ‘안’ 혹은 ‘아니’의 의미가 더해져서 ‘이다’의 의미적 自立性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와 결합되는 성분 ‘Y’는 조사와의 결합이 허용되는 것이다.

(40) 가. X-는 Y 아니다

나. X-는 Y-가 아니다

다. X-는 Y-는 아니지만

라. X-는 Y-도 아니다

마. X-는 Y-나 아닐지

바. X-는 Y-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다’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格實現의 양상은 동일하다. 이를 구조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지정’의 의미가 아닌 ‘는, 도’는 그러면 왜 ‘이다’와 결합할 수 없는가를 또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

(41) N0-(ϕ)-(가/는/도) N1-(ϕ)-(ϕ) 이다

(42) N0-(ϕ)-(가/는/도) N1-(ϕ)-(가/는/도) 아니다 (\leftarrow 아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다’ 구성에서 ‘Y’ 성분이 ‘屬性’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한국어에서 바로 주어진 성분의 ‘個體性’이라는 의미 해석은 바로 이러한 개체성이 실현되는 층위를 표시하는 한정조사들(=보조사의 일정 부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위의 조사들은 ‘한정조사’로서의 共通基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무슨 근거로 그러한가? 우선적으로 그들의 分布 환경이 이를 입증한다. 위의 조사들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동일 위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성원들로서 그들은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자면, ‘이/가’와 ‘은/는’을 비교하더라도, ‘비한정 존재’와 ‘한정 존재’의 개체화의 대립, ‘초점’과 ‘화제’의 대립, ‘신정보’와 ‘구정보’의 대립 등 명사 또는 명사구의 실현 양상에서 이러한 한정조사들이 하는 역할은 일정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시정곤(2005)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핵이동’으로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핵이동’의 결과는 ‘한정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설명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격조사 ‘이/가’의 非實現 현상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가’가 격조사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출발선상에서 제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論旨는 바로 ‘이/가’에 대한 성격 규정이 처음부터 타당한지에 대한 시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언은 반드시 격을 요구한다고 보고 ‘이다’를 용언으로 보면 왜 격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攻駁은 어떻게 무마시켜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격의 실현을 말하라면, 그것은

15) 목정수(1998) 이후, 양정석(2001:342)에서도 인용의 흔적은 전혀 없지만, 유사한 언급이 나온다. “‘이다’ 문장에서 격조사가 제약되는 것은 이 위치가 본질적으로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담화화용상의 특정 정보의 부각 또는 환기 등을 본질적 기능으로 가지는 ‘이/가’, ‘을/를’, 또는 그밖의 보조사들이 이 자리에서 제약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6) 한정조사로 범주화된 ‘이/가, 을/를, 도, 는, (의)’의 冠詞(article/determiner)로서의 성격 규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목정수(2003)을 참조할 것.

바로 무표격, 부정격 등으로 이야기되는 ‘零形態’의 격을 상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위의 ‘이다’ 구성의 기본 구조를 다시 옮겨 놓는다.

(43) $N_0-(\phi_1)-(가/는/도)$ $N_1-(\phi_1)-(\phi_2)$ 이다

한국어에서 주어진 논항이 零形態의 격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영형태의 격은 敘述語와 論項의 의미 관계, 語順 등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⁷⁾ 어쨌든, ‘이다’ 구성에서 조사 ‘이/가’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격의 실현 여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보조사, 달리 말해 한정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제약의 문제로 보고, 그러한 제약과 의미해석의 相關構造를 밝혀내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이다’ 구성의 핵심적 문제라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것은 ‘이다’를 형용사로 보든, ‘통사적 접사’로 보든, ‘형식동사’로 보든 그 어떤 시각과도 무관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형식적으로 재구성하여 제기해 보자.

(44) ‘X-는 Y-이다’ 구성에서 그 구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Y’ 성분에는 공통적으로 ‘이/가, 은/는, 도’로 대표되는 공통의 조사들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한가? 그리고 그런 통사 현상은 어떤 의미해석과 관계가 있는가?

2. ‘이다’ 구성의 意味解釋

양정석(2001)에서는 ‘Y-이다’의 자리에 나오는 명사의 의미해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이다’ 구문을 상정하고 있다.

(45) 두루미가 학이다. (지시적 의미+속성적 의미)

17) 이에 대한 논의는 안병희(1966), 이남순(1988)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고, 이를 비판적으로 확대 발전시킨 목정수(1998, 2003)에 기반을 두고 있다.

(46) 나는 경애가 최고다. (속성적 의미)

본고는 ‘Y’ 자리에 오는 명사가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속성적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統辭的으로 그 자리에 나오는 어휘에는 無條件的으로 ‘한정조사’의 制約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법적으로 한정조사에 의해 표현되는 ‘指示性’이 차단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시적 의미가 드러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固有名詞도 이 자리에서는 外延이 가리키는 지시적 의미보다는 속성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47) 가. 철수는 과연 철수야.

나. 나는 아시아의 소쉬르이다.

사실 이러한 해석의 제약 때문에 ‘이다’ 구성의 의미 해석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흔히들, ‘동일문 equational sentence’으로 보는 것도 해석하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可能하다. 즉, ‘나는 학생이다’와 ‘나는 짜장면이다’는 같은 유형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나는 (신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생이다’, 후자는 ‘나는 (주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짜장면이다’로 평행한 구조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⁸⁾

3. 특수조사의 非對稱性에 대한 문제

‘이다’ 구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다’ 선행성분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과 더불어 자주 지적된 것 가운데 하나가 특수조사 또는 보조사는 분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정곤, 1998). 소위 보조사의 插入 可能性이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보조사가 분포하는데, 일정한 부류의 보조사만이 ‘이다’ 구성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목정수(1998, 2003)에서 한정조사로 部類化했던

18) 계사 용법에 대한 유형론적 분류에 대해서는 Pustet(2003), 박진호(2005) 참조.

{이/가, 을/를, 도, 은/는, 의, (이)나, (이)라도}만이 ‘이다’ 구성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자는 목정수(1998, 2003)에서 사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이다’ 구성에서 중요한 爭點으로 浮刻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형태·통사적 제약 때문에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구의 意味解釋이 ‘개체’가 아닌, 즉 ‘지시성’을 확보하지 못한 ‘속성’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을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박철우(2005, 2006)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X-이 Y-이다’ 구성에서 지시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X’이지 ‘Y’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이론적 입장에 서느냐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同意할 수 있는 부분이다.

(48) 가. 집으로이다 나. 학교에서였다
 다. 이번만이다¹⁹⁾ 라. 그것뿐이다

(49) 가. *학생의이다 나. *학생이이다
 다. *학생은이다 라. *학생을이다
 마. *학생도이다 바. *학생이라도이다
 사. *학생이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다’ 구성의 ‘이’를 어순뒤섞기에 의거하여 조사로 규정하고 있는 우순조(2005)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우순조(2005)의 논의에서 가져온 예이다. 그는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토대로 ‘이다’의 ‘이’가 주어 자리의 ‘이’와 같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50) 가. (철수, 영화, 병철 중에서) 철수-만-이 부자다.
 나. *^{??}(부자, 천재, 정치가 중에서) 철수는 부자-만-이다.
 (51) 부자는 철수-만-이다.

19) 안명철(1995)에서 지적된 ‘이다’의 語彙的 派生 개념에 대해 ‘걱정들이다’, ‘최고들이다’의 예로 의심하고 있는 시정곤(2005:59)를 보더라도, 어휘적 파생, 더 나아가 통사적 파생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어떻게든 조사에 의한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위 두 문장의 의미적 동일성에 대한 反駁을 하기 앞서서, 많은 제기가 있었지만,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50가)의 [철수만이]가 (51)의 [철수만이]-다’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라면 (50가)의 [부자]다’가 (51)의 [부자는] 혹은 [부자가]의 형태 중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사 ‘이’의 분포의 偏在性을 가지고 설명은 시도하고 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가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의하기에 難色을 表하고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결정적인 것은 위 두 문장의 同意性 與否인데, 필자는 위의 두 문장이 같은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²⁰⁾ 다음을 통해 이를 밝혀보자.

(52) 가. 할아버지는 그 당시 유치원생이시었다.

나. *유치원생이 그 당시 할아버지이시었다.

(52나)에서 ‘유치원생’이 자리바꿈하여 ‘X’ 자리에 놓인 것이므로 (52가)에서의 그 자리와 같은 것이라면 왜 (52나)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일까? 한국어의 ‘시’는 주어/주체 존대 표지로서 ‘주어’와 호응/일치하는 것인데, (52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52나)에서 ‘유치원생’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52가)에서는 주어 자리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시’가 호응/일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52나)의 ‘유치원생’은 (52가)의 ‘유치원생’과는 동일한 자리에 놓이는, 즉 같은 의미해석을 받을 수 없다. 그 만큼 위 둘의 統辭 構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라야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53) 유치원생은 그 당시 20대 청년들이었다.

V. 마무리

지금까지 ‘이다’ 구성과 관련해서 다양하면서도 極과 極으로 맞서고 있는 듯한 대표적인 세 논의, 임홍빈(2005), 시정곤(2005), 우순조(2005)를 중

20) 박철우(2005, 2006)에서 이러한 부분이 집중 비판되고 있다.

심으로 각각의 논의 구조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다’ 구성의 核心的인 問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후, 이러한 시각에서 각각의 시각의 長短點을 批判的으로 檢討해 보았다. 또한 한국어 문법의 가장 巨視的인 次元에서 유지되어야 할 몇 가지 公理的인 수준의 사항들, 즉 어휘범주에서 體言(=명사)과 用言(=동사)의 뚜렷한 구분, 그에 따라 조사와 어미의 통사적 단위로서의 차이 등과 矛盾되지 않으면서, ‘이다’의 正體性을 밝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셈이다. 무엇으로 표현하든지간에, ‘이다’의 ‘이’는 범주적으로 동사 차원의 형식적 어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임에 분명하고, 그렇지만 獨自的인 意味 單位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선행하는 요소 즉, 명사(구)와 統辭的 構成으로 결합한다는 점, 선행 명사(구)에 따라 하나의 어휘 단위 즉 連어collocation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 省略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환경을 音韻論的으로 豫測할 수 있고, 충분히 復元이 가능하여 생략에 따른 의미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繫辭copula²¹⁾ ‘이다’를 기능동사support verb로서의 ‘이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最善策임을 보였다. 본 논의는 결론적으로 목정수(1998)의 再湯에 不過하지만, 거기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부분과 타 논의에 대한 論駁을 明證的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收穫이었고, 한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統辭 單位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反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意義를 지닌다고 본다. ‘이다’ 논쟁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본고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應戰을 期待하면서 논의를 맺을까 한다.

◇ 參 考 文 獻 ◇

- 김상태(2006), 『음운적 단어 설정에 대한 연구 - 띄어쓰기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pp.31~52.
 김의수(2002), 『‘이다’ 재론』, <형태론> 4-2, 도서출판 박이정, pp.349~356.

21) 계사copula를 연결/접속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 전환 기능요소로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 남길임(2004), 『현대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p.25.
- 목정수(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pp.245~290.
- _____(2003),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_____(2006), 「A Continuity of Adjectives in Korean : from a prototypical perspective」, <언어학> 45, 한국언어학회, pp.87~111.
- 박진호(2005), 「계사 유형론과 한국어 ‘이다’의 정체성」,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세종전자사전 개발연구단, 別紙.
- 박철우(2005), 「세종전자사전의 ‘이다’ 구문 기술과 표상」,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pp.79~92.
- _____(2006),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pp.235~263.
- 시정곤(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탑출판사, pp.143~150.
- _____(1998), 『(수정판)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 _____(2005),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한국어학> 28, 한국어학회, pp.55~80.
- 안명철(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국어학회, pp. 29~49.
- 안병희(1966), 「不定格(Casus Indefinitus)의 定立을 위하여」, 남기심 외 편(1975), 『現代國語文法』, 계명대학교출판부, pp.99~101.
- 엄정호(2000), 「‘-이다’의 ‘-이’는 조사인가」, <형태론> 2-2, 도서출판 박이정, pp.333~343.
- 양정석(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국어학회, pp. 337~366., p.392.
- 우순조(2005),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세종전자사전

개발연구단, pp.61~77.

이남순(1988), 『國語의 不定格과 格標識 省略』, 탑출판사.

임홍빈(2005), 「정체 밝힘의 ‘이다’ 문제와 연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
단, pp.5~46.

최동주(1999), 「‘이’계 특수조사의 문법화」, <형태론> 1-1, 도서출판 박이정,
pp.43~60.

황화상(2005), 「‘이다’의 문법범주 재검토」, <형태론> 7-1, 도서출판 박이정,
pp.135~153.

Bhat, D. N. S.(1999), *The Adjectival Category.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nd identif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Dixon, R. M. W. and A. Y. Aikhenvald (eds)(2004),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Pustet, R.(2003),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Ox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Defense of the Support Verb 'ida' in Korean

Mok, Ju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i-da' in Korean should be a 'support verb', not a 'syntactic affix' or a 'nominative case marker'. For this, we reexamined the problems of the ellipsis of 'i-da' and the palatalization before 'i-da'. We conclude that these phonological phenomena might not be a stumbling block for considering the 'i-da' as a support verb. Contrary to the general expectation, the essence of the 'i-da' constructions lies in describing the 'josa' constraints, particularly with the delimiters/determiners '-i/ga(이/가)', '-eul/leul(을/를)', '-do(도)', '-eun/neun(은/는)', '-ina(이나)', '-irado(이라도)' etc., and expla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such a syntactic constraint and semantic interpretation 'property' of the preceding NPs in 'i-da' constructions. Moreover, the negation form 'ani-da' can be synchronically analysed as [*an*(negation adverb) + *ida*(support verb)].

※ Key-words : case assignment, delimiter/determiner/article, nominative case marker, support verb, support adjective, verballity